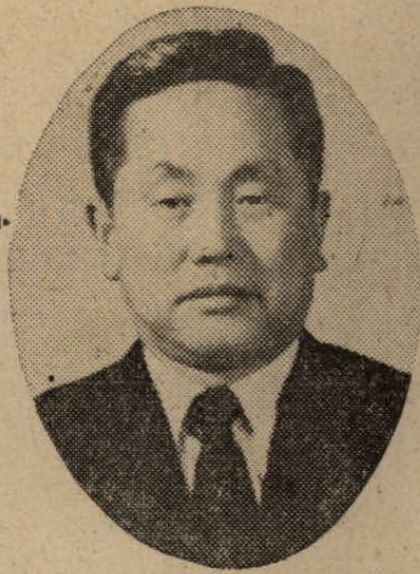




이 동욱 교장 선생님의 편지

Mr. Dong Wook Lee
2316 E. 5th St.
c/o Mrs. Athas
Tulsa, Okla. 74104
U. S. A

보고 싶은 인성 가족에게

여러분과 헤어져 세 번째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학생들이 그림고, 학교가 그림고 선생님들이 보고 싶은 생각 간절합니다. 3년이나 떠나 있어야 하는 자신을 생각하며, 부끄럽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합니다.

송학의 기슭이 흰 눈으로 새로와지고 알차게 영글은 인성인의 결실이 풍요로운 이 무렵, 보따리를 짊어지고 새로 만들었다는 교문을 들어서며, 새로 세웠다는 육교를 건너가는 자신을 몇 번이나 그려 보는지 모릅니다. 인성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갈 수 있기를 빌 뿐입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인생의 모습, 그리고 급변하는 주위의 요청, 어느 하나 우리와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바라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롭다는 의미는 부름에 응하고 준비하는 속에 있겠습니다.

일찍 이 땅에 허락하신 큰 뜻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신과 격려로 크게 울려오는 이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속에서의 내가 설 곳과 내 이웃의 자리를 예비해 줄 줄 아는 슬기,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줄기차게 닿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과 사랑의 빛이라 생각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시작을 이 순간 생각해야겠어요.

우리 인생에 속한 모든 식구들 위에 기쁜 성탄과 희망의 새해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1월 12일 교문을 나서는 중·고등학교 640여 졸업생에게 한결같은 인생인의 정신을 기억하며 살라는 당부와 함께 축하를 보냅니다.

1973년 12월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이 동 육